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, 일손부족 농촌서 '영농도우미' 활동

정태희 기자 chance0917@hanmail.net

기사입력 2025.10.22 17:13:27 최종수정 2025.10.22 17:13:27



- 22일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직원들이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한 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[충북일보]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최현수)는 22일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드리기 위해 영농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.

청주시 남이면 한 농가의 고구마 밭에서 추진된 이번 활동은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직원 뿐만 아니라 남청주농협(조합장 이길웅) 직원 등 20여명이 함께 봉사를 하여 의미를 더 했다. 추석 이후 계속된 가을비로 고구마 수확이 늦어져 애태우던 농민은, 직원들의 도움으로 400평 정도되는 고구마 밭의 수확을 끝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.

최 본부장은 "기상이변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께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"며 "앞으로도 다양한 행복충전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의적절한 노력을 계속하겠다"고 강조했다.

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영농도우미, 집고쳐주기, 농어촌IT서포터즈 등 30여회, 250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'행복충전활동'을 통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해 오고 있다. /정태희 기자 chance0917@hanmail.net

Copyright @ 충북일보 & inews365.com
